



강남구 삼성로 720 (홈페이지: www.cdscd.org)
 사무실: O2)3447-O750~1 팩스: O2)3447-O752

주 임 신 부 : 주경수(세바스티아노)
 1 보좌신부 : 서기원(바오로)
 2 보좌신부 : 김세영(파비아노)
 전 교 수 녀 : 이정미(마르첼라)
 정정순(콘체사)
 박선옥(에드워드)
 사 목 회 장 : 장병철(율리아노)
 연 령 회 장 : ☎ 010-5411-5837

주일미사	토요일 15시(초등부), 토요 저녁미사 : 19시 / 주일 : 6시, 9시, 11시(교중미사), 15시(중고등부), 17시, 19시		
평일미사	월 ~ 토 : 6시 / 화 ~ 금 : 10시 / 화 ~ 금 : 19시	고해성사	주 일 미사 전 30분
봉 성 체	매월 둘째 목요일 10시 미사 후		평 일 미사 전 15분
관면흔배	매월 둘째 토요일 17시 *	유아세례	출수 달 첫째 토요일 17시

소 식

금주의 성경 암송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께서도 그 사랑 안에 머무르십니다.” (1요한 4,16)

- **병자안수 축복식: 9월 25일(오늘) 교중 미사 후**
- **성모신심 미사: 10월 1일(토) 오전 6시**
- **10월 묵주기도 성월 안내**
 * 10월은 묵주기도의 성월입니다. 교황 레오 13세께서는 10월을 ‘묵주기도 성월’로 정하고 묵주 기도 신심을 적극 장려하셨습니다. 10월 한 달을 보내시면서 개인과 가정의 성화는 물론, 특별히 인류 구원과 세계 평화를 위해 묵주기도를 많이 바치시기를 권합니다.
 * 일시: 10월 1일(토)~31일(월) 오전 9시 20분, 성당마당

- **9월 예비신자 모집 및 환영식**
 * 환영식: 9월 25일(오늘) 오전 10시 30분, 2층 대성전
 * 세례예정일: 2017년 3월 예정

요 일	시 간	장 소	비 고
화요일	저녁 8시	1층	요일별
주일반	오전 9시 20분	프란치스코홀	수업 선택

- **새 신자 첫 고해성사 안내**
 * 일시: 10월 8일(토) 오후 8시, 2층 대성전
 * 대상자: 2016년 8월 27일 세례 받은 교우
- **‘한낮의 음악회’ 안내**
 * 일시: 10월5일(수)~ 매주 수요일, 낮 12시30분~오후 1시
 * 대성당에서 “한낮의 작은 음악회”가 열립니다. 하모니카, 바이올린, 피아노 그리고 성악 앙상블 등이 연주하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클래식과 크로스 오버 음악회에 많은 교우분들의 호응 부탁드립니다

일 시	주 제
10/5 (수)	떠오르는 젊은 연주가, 전문 하모니카 연주가 이윤석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
10/12 (수)	“씨네마 천국” 영화속에 나오는 영화음악을 중심으로 클래식과 뮤지컬, 칸조네 연주
10/19 (수)	담대하면서도 섬세한 바울리니스트 임성윤의 연주로 감상하는 힘 있고 경쾌한 바이올린 명곡
10/26 (수)	“가을편지-사랑,이별 그리고 또다른 희망” 깊어가는 가을 정취와 어울리는 귀에 익은 한국가곡과 외국 예술 가곡 및 아리아

- **‘자비의 희년’ 특별 후원미사 안내**
 * 일정: 10월 8일(토) 저녁미사~ 10월 9일(주일) 모든 미사
 * (사)올마이키즈(all my kids)는 “모두 나의 아이들”이란 뜻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저개발국가의 어린이들이 가난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을 후원하는 단체입니다.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제 45차 산악 동호회와 제 29차 엠마오 동호회 연합 태안 후암산(솔향기길)산행**
 * 일시: 10월1일~10월8일(토)연기, 오전 6시40분/성당마당
 * 준비물: 희비4만원, 간식, 엠마오(동호회)스카프
 (*산상미사 예정, 접이식 의자 및 깔판 준비)
 * 문의: 산악동호회-김 사도요한 (010-8592-7514)
 엠마오동호회-전 도미니카 (010-3297-6738)
- **자전거 동호회 10월 라이딩 모집**
 * 일시: 10월 15일(토) 오전 9시, 성당마당 출발
 * 장소: 4대강 코스(양평역-이포보-여주보-여주 왕복 60Km)
 * 문의: 안 요셉(010-3000-3506)
- **차 아카데미 회원 모집**
 * 차 예절과 세계 명차 마시기
 *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40분~12시30분, 지하 자비방
 * 문의: 김 가브리엘라(010-4564-5673)
- **청년 전례단 ‘Lafamilia’ 신입단원모집**
 * 미사 전례봉헌 하실 청년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 문의: 박선호 사도요한(010-2006-7394)
- **대성전 성상 봉헌 안내**
 * 대성전에 순교자상, 요셉·마리아 부부상(작가: 김 안셀모 수녀)을 새로 모시고자 하오니 교우분들의 많은 봉헌 바랍니다.
 * 문의: 사무실 또는 주임신부님
- **9월 25일(오늘): 본당시설보수 2차(본당)**
- **10월 2일(주일): 군인주일 2차(교구)**

모 임

- 9월 25일(주일): 독서단
- 9월 26일(월): 성령기도회 (강사 : 송기숙 마리아)
- 9월 27일(화): 연령회
- 9월 28일(목): 성소후원회, 군중후원회
- 9월 29일(금): 남성 성체 조배회

성가번호 입 당 : 37 예물준비: 성가정성가, 217 성 체 : 506, 502, 497 파 견 : 청담동 본당가

화 답 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허 꽃

꿈을 꾀으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혀와 윗니 아랫니의 스텝이 꼬여서 입안에서 사고가 났다. 혀끝을 세계 깨물었기 때문인지 한참 동안 피가 멎지를 않았다. 일 년 넘게 헛바늘이 사라지지 않아서 고통을 받고 있던 터라, 이 고통은 정말 심했다. 죽을 것처럼 아팠다.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지는 못하지만, 이 정도였을 것이라고 억지를 부려본다. 이 헛병을 한의사 친구는 크게 웃으면서 심화열이라고 했다. 진담인지 농담인지 헛갈렸다.

기슴에 무엇인가 딱 차 있어서 그곳이 혀와 연관되어 있기에 구강에 이상이 생긴다는 것이다. 털어내어야 낫는다는 뜻이란다. 혀를 깨문 그 날은 기도도 할 수 없어서 묵언으로 지냈다. 그러더니 허룻밤을 자내고 나서 씻은 듯이 사라졌다. 헛바늘마저도... .. 자연치유라 여기며 하느님을 찬미했다. 어릴 적 할머니 말씀이 생각난다. 크게 웃으며 '고기 맛이 그리우냐?'고 '금방 나올 거다'라고... ..

“오늘도 어제처럼 무더우면 죽을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죽' 다를 입에 붙이고 지내는 이천 십 육년 칠팔월이었다.

그러나 처서가 지나니 역시 살려주시는 하느님이시다. 숨을 자주 쉬면서 상쾌한 새벽 내음을 맡는다. 일출을 안고 달려가는 길, 그곳에 대한 아무런 선지식이 없다. 성지 순례 책자도 미리 구하지 못했는데, 한국 성지 순례 1기의 여정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23회에 무작정 합류했다. 참, 염치없는 행동이었지만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하며 겸손하게 실행토록 노력 할 것이다.

첫 대면은 경상 죄수영이었던 수영 장대골에서 남(순교자)들을 만났다. 남들은 천상에서 피어난 꽃으로 병인년 음력 팔월 사일 생이다. 「수영장대」를 풀어서 말하면 수영교련대라고 할까, 지휘관이 올라서서 장정들을 훈령하던 단이라고 했다.

그 단의 중앙에 치숫아 피어있는, 빛나는 하얀 꽃이 높이 들려 눈부시게 다가온다.

「수영장대 순교자비」이다.

화심은 십자가로 영원한 구원을 품은 듯하고, 꽃잎은 남들의 혀 여덟 장으로 주님의 빛을 되쫓는 듯,

혀 꽃으로 피어있다. 순간 침을 삼킨다. 입천장과 어금니를 혀가 맞추어 누르며 넘어간다. 또 삼킨다. 목이 메인다. 혀가 침을 만들어 낸다. 꿀꺽꿀꺽 침만 삼킨다. 눈이 아려 젖어온다.

남들은 이정식(요한)과 아들 부부 이월주(프란치스코) 박조이(마리아), 조카 이삼근(베드로), 교우 차장득(프란치스코) 옥조이(발바라) 이관복(야고보), 그리고 이 요한의 대자 양재현(마르티노)이시다. 이분들은 수영장대에서 영화로운 죽음을 맞았다고 한다.

천주실의를 설파했던 혀, 천주님을 고백했던, 진리를 지킬 것을 다짐했던, 신앙공동체를 유지했던, 의연히 죽음에 임하여 배교 하지 않은 혀, 꽃으로 피어난 여덟 분의 신앙은 혀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강한 다짐을 주었다. 우리는 일상을 지내면서, 세치의 혀로 인하여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 보내기도 하고, 이 말과 저 말로 미혹하기도 돌아설 수 없는 오해도 부르지만, 그 혀로 진리도, 화합도, 사랑도 외치고, 평화의 인사도 나눈다. 사람의 혀가 한 가닥인 것은 뱀은 말에 책임까지도 가져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뱀은 두 갈래의 혀로 하와를 유혹했고 하와는 한 가닥의 혀로 거짓을 말했다. 하나의 혀를 가졌으나 인간의 마음은 여러 갈래이니, 남 들은 나에게 마음가짐의 일치를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번 첫걸음마를 계기로 성지 순례를 완주하기로 다짐한다.

<청담 수필반 12구역 5반 최옥연 제노베파>

♣ 환경 개선 봉헌금 (*목표액: 3억원) ♣ 청담동 성당 성물 봉헌금

환경개선 봉헌금 (9 / 20 현재)		아름다운 성전을 위한 성물 봉헌금 (9 / 20 현재)	
김 이시도로	500,000원	배 비오	100,000원
		익 명	6,100,000원
총 누 계	166,749,000원	총 누 계	168,550,000원 / 371명

※ 아름다운 청담동 성전을 위한 성물봉헌을 위해 교우분들께서 10만원씩을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접수 및 문의 : 사무실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봉 헌 예 목		감사헌금 (9 / 20 현재)				교무금 납부 현황			
9/7~9/20		장 미카엘	1,000,000	박 마리아	50,000	김 발바나	500,000	총 세대수	3,878
교 무 금	33,210,000	길 로사리아	1,000,000	신 마테오	50,000	김 헬레나	100,000		
9/11(주일)		배 마리아막달레나	100,000	한 로사	100,000	영어성경반	100,000	총 납부세대	1,296
주일 봉헌금1차 (연중 24주일)	11,434,810	김 안드레아	300,000	이 스테파노	1,000,000				
현미헌금 2차	6,529,650							지난주 납부세대	16
9/18(주일)		최 콜렛따안젤라	50,000	문 마리아	100,000				
주일 봉헌금1차 (연중 25주일)	11,577,260							지난주 납부율(%)	33.5%
성지개발 2차	6,959,050	합 계 : 4,450,000							